

# 유머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성 이론 기반 연구\*

이연우\*\* · 박기성\*\*\*

(부산대)

Lee, Yeunwoo and Park, Kiseong. (2016). The Study of Humor Text Based on Textualit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4(3), 207-222. On the basis of the assumption that humor text is a highly context-dependent with reference to the fact that there may be used in linguistic research certain standards of textua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how the set of standards of textuality is related to humor text. These standards include: 'cohesion', 'coherence', 'intentionality', 'acceptability', 'informativity', 'situationality', and 'intextuality'. This paper shows that the standards can be corresponded to Grice's maxims, and argues that the standards of textuality can be the sub-category of maxims. As a pilot study, we have analyzed some segments of English humor text. The object of this paper are 1) to investigate how the standards of textuality can be arranged as the sub-category of maxims, 2) to examine the correspondence aspects of textuality and maxims, and 3) to argue that humor texts are considered as the texts which have chains of violate certain standards.

**주제어(Key Words):** 텍스트성 이론(Textuality), 대화격률(maxims), 텍스트(text), 유머(humor), 대화(communicative), 추론(inference)

## 1. 서론

유머는 인간의 언어생활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유머는 성격에 따라서, 갈등을 조화롭게 바꾸어 놓아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 수도, 또는 sarcastic irony의 일환으로서 상대방을 교묘하게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수단으로 사용

---

\* 부족한 글에 꼼꼼하고 명쾌한 지적을 해 주신 세 분의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제 1저자 이연우(부산대학교)

\*\*\* 교신저자 박기성(부산대학교)

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유머를 ‘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이라 정의 내린다. 또한 Attardo(1994: 4)는 유머란 ‘웃음을 유발 시키고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모든 사건이나 실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Ross(1998: 1) 역시도 유머는 “사람을 웃거나 미소 짓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 정의를 내렸다. 이러한 정의들은 유머가 웃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유머 발생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언어학적 측면에서 발음 활용, 단어나 어구의 파괴, 사투리의 사용, 비속어사용등을 가지고 웃음 유발을 설명하였으며, 비언어학적 접근으로는 표정, 목소리, 몸짓, 의도된 상황 설정으로 웃음 유발을 설명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Koestler(1993)에 의하면, 유머의 유형은 언어적 유머(verbal humor)와 상황적 유머(situational humor)로 구분되며, 유머 종류의 대부분은 언어적 유머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적 유머를 다루는 기제로는 인지언어학, 화용론, 의미론, 사회언어학 등 언어학의 다양한 이론들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언어적 유머는 화자가 Grice(1975)의 협력원리의 대화격률을 위반하는 데서 비롯되는 불일치성(incongruity)에 기반을 둔다. 유머의 불일치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최영건과 신현정(2015)은 유머에서 도입부와 급소문구(punch line)가 명확하게 상호모순적인 사실을 나타내며, 이러한 명백한 상호모순 자체가 유머의 핵심이 된다고 기술한다. 한성일(2002)은 유머 텍스트가 웃음을 유발하는 근본원리는 ‘비예측성’에 있다고 제안하며, 창의적 표현이 가져오는 비예측성이 갑자기 실현되어야 웃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지원(2007)에 따르면 유머담화의 구조는 제약조건과 웃음유발 장치가 함께 수반되어야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오정은과 박기성(2010)은 체면위협행위(face-threatening act)와 임지원(2007)이 제안한 제약조건과 웃음유발 장치가 함께 있어야만 유머담화구조가 성립됨을 주장하며, 체면위협행위에 의해 웃음이 유발되는 빈도수가 대화격률의 위반을 기제로 한 웃음 유발의 빈도수에 육박하고 있음을 보이며 체면위협행위가 웃음유발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증명한다.

유머연구에서 텍스트성을 다룬 논의로, 남경완(2002)은 유머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추론 구조를 화용적 양상으로 살펴본 유머 텍스트의 구조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한성일(2004)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 웃음 유발의 원리인 비예측성을 구현하여 웃음 유발의 원리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머연구에서 텍스트성을 기반으로 유머가 생성되는 기제와 구조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텍스트성의 기준들의 위배가 유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시된 바가 없다.

유머 텍스트는 상대방을 웃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일정한 구조를 갖춘 이야기이다. 인터넷이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머는 유머를 생산하는 텍스트 생산자가 텍스트 수용자를 웃기기 위해 지어낸 픽션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유머 텍스트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유머 텍스트 분석을 위한 도구로 채택한 북미권의 인기 있는 시트콤인 「빅뱅이론」(“The Big Bang Theory”)의 주요 구성은 유머작가가 유머 텍스트에 나오

는 등장인물을 통하여 현실 세계의 유머 텍스트 수용자를 웃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트콤에서는 텍스트의 생산자는 유머작가이고 작가가 진행되어야 할 스토리의 경로를 설정한다. 하지만 생산된 텍스트를 발화하는 것은 등장인물이다. 유머작가는 웃음 유발을 목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지만 유머 텍스트 내의 등장인물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웃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 유발의 의도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발화를 하는 것이다. 시트콤에서 텍스트 수용자는 유머 텍스트 내에서 상대방의 발화를 받아들이는 등장인물과 현실세계에서 유머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청중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시트콤의 유머 텍스트는 두 가지 층위를 설정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현실세계의 유머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는 각각 유머작가와 청중들이다. 두 번째로는 등장인물 차원에서 유머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는 각각 등장인물들이다. 이렇게 층위를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등장인물들은 유머 텍스트에서 일어나는 일탈과 위반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현실세계의 유머 텍스트 수용자인 청중들은 유머 텍스트에 어떠한 일탈이나 위반이 일어날 것임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등장인물들은 텍스트 내에서 어떠한 대화 원칙의 위반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유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머 텍스트에서 유머를 인지하고 웃는 것은 청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머 텍스트가 현실세계의 텍스트 수용자의 의미 이해의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이전에 텍스트 공간 내의 등장인물 차원에서 그들의 담화를 분석하여 결여된 텍스트의 기능이 의사소통에서 어떤 대화의 원리를 위반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언어 구성체를 텍스트로 판정하는 Beaugrande와 Dressler(1981)의 텍스트성이론의 일곱 가지 기준이 Grice(1975)의 네 가지 대화 격률과 호환될 수 있음을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들이 대화격률에 대응하고 유머 텍스트에서 텍스트성 기준들의 위반 또한 대화격률의 위반과 대응이 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들이 완전히 만족되지 않은 유머 텍스트가 대화 격률로 대응을 함으로써 대화 격률의 위반에서 일어나는 양상과 같다는 것을 밝혀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요소를 언어학적 범위 안으로 포함시켜 화용론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유머텍스트를 일반적인 추론과정인 현실세계의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간의 발화이해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일치가 유머를 생성하는 것을 논의하는 기존 연구의 방향에서 벗어나 유머의 '현상'이 아닌 '텍스트'로서의 유머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렇게 유머 텍스트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들의 위배와 연관시켜 분석하는 것은 유머 텍스트의 유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대화격률에 대응되는 텍스트성 이론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인지적 과정들 속에는 언어적 통화를 수행함으로

써 통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담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뤄질 담화 텍스트는 유머 발생을 목적으로 한 유머 담화 텍스트로, 급소 문구에서 텍스트성 기준의 위반이 주로 나타난다. 구현정(2000: 6)에 따르면 유머의 담화 구조에 급소 문구의 수는 한 개가 일반적이나, 여러 개의 급소 문구가 나타날 경우 대화의 결속성을 깨뜨릴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유형의 급소 문구가 점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담화의 결속성을 유지하게 된다.

담화를 생산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의도를 복원해내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면을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한 이론 중, 텍스트성 이론은 Beaugrande와 Dressler(1981)에 의해 소개된 이론으로 결속구조(cohesion), 결속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정보성(informativity), 상황성(situationality), 그리고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텍스트성을 가름하는 일곱 가지 기준들로 상정하여 일상적 대화를 포함한 모든 장르의 언어적 통화행위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텍스트를 생산함에 있어서 텍스트를 만드는 사람(생산자), 받아들이는 사람(수용자), 그리고 텍스트를 둘러싼 상황이 필수적이다. 텍스트 생산자가 의사소통의 목적(의도성)을 성취하기 위해 텍스트가 발생하는 상황(상황성)과 텍스트를 수용하는 사람의 용인 정도(용인성)를 고려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의미의 흐름(결속구조)을 갖는 문장연속체(결속성)를 만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미 생산된 다른 텍스트를 가져와 언급하고(상호텍스트성) 표현의 개성을 살림으로써 정보전달의 효과(정보성)를 높이기도 한다(박나리, 2008: 163).

그러나 유머 텍스트에는 텍스트성 기준들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인물의 행위 혹은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는 엉뚱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발화에서 텍스트성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그 발화의 텍스트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고, 그 발화가 텍스트성 기준들의 자질을 고루 갖춘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머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는 이것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인다. 이러한 텍스트성의 기준들이 위반되는 유형은 Grice(1975)의 대화격률의 위반과 상당부분이 일치한다.

웃음 유발이라는 유머 텍스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자는 대화 격률의 위반이나 체면위협행위와 같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그 중 대화 격률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청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유머 텍스트에서는 대화의 격률을 하나 또는 다수를 위반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웃음을 자아낸다.

대화격률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Grice, 1975: 65)<sup>1)</sup>.

1) Mey(2001)에 따르면 '양의 격률'과 '관계의 격률'을 중심으로 대화 격률의 잉여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Grice의 이론을 정제하거나 아예 극복하려는 시도의 수정된 이론이 등장하였다. 그 중, Horn(1984)은 협력원칙의 맹점을 설명하고 보완하였고, Sperber와 Wilson(1986)은 대화격률 중 관계의 격률을 초석으로 삼아 대화의 함축 의미를 계산하는 차원의 발전된 이론을 소개하였다. 하지만 양자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Grice(1975)의 대화격률을 중심으로 격률의 위배 양상을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다.

- (1) a. 양의 격률: 발화를 이해할 정도의 필요한 양 만큼의 정보만 제공하라.
- b. 질의 격률: 거짓이라 믿는 것과 충분한 증거가 없는 발화는 하지마라.
- c. 관계의 격률: 관련된 것만 말하라.
- d. 양태의 격률: 모호성과 중의성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

대화격률은 텍스트 생산자 중심으로 기술되어진 이론지만,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들은 텍스트중심의 결속구조와 결속성,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중심의 정보성, 의도성, 용인성, 상황성 그리고 상호텍스트성으로 이루어져있다. 두 이론은 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용인성과 의도성은 각각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위의 대화격률의 특성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용인성과 의도성만이 대화격률과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결속구조와 용인성을 제외한 다섯 가지의 기준들이 각각 대화격률에 세부구조로 대응된다는 것을 밝힌다. 다음으로는 텍스트성 이론 기준들에 대해 설명한 후, 아래의 기준들이 대화격률과 어떤 대응을 이루는지 2.1.4에서 밝히겠다.

## 2.1.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

텍스트성 이론은 연구되어진지 오랜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1960년대 이후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처리 과정의 개념을 텍스트성으로, 체계의 개념을 언어로 간주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김태욱 & 이현호, 1995). 텍스트는 텍스트성의 일곱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통화성 발화체(communicative occurrence)라 정의되며, 이 기준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그 텍스트는 의사소통적이지 않은 것이다(Beaugrande & Dressler, 1981: 3).

### 2.1.1. 결속구조와 결속성

텍스트의 구조는 문장들 사이에 관련성 없이 따로 떨어져있지 않고 텍스트안에서 의미적으로 상호의존적이어야 한다. Schegloff와 Sacks(1973: 296)는 상호 의존성 개념으로서 텍스트의 한 문장이 그 전에 제시되었던 다른 문장과 연결되거나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순차적 함축성(sequential implicativeness)을 제안한다. Halliday와 Hasan(1976)에 의하면, 결속구조는 텍스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통사적으로, 그리고 어휘적으로 의미적 관계를 가지는 기능을 한다. 즉, 결속구조는 표층텍스트의 요소이고, 우리가 듣거나 보는 단어는 순서(sequence)안에서 상호 연결되어있다. Beaugrande와 Dressler(1981)의 견해에서 결속구조는 결속구조적 장치(cohesive devices)가 텍스트 수용자의 인지 환경에 적절하게 연결된 맥락효과를 일으킨다고 논의한다. 결속구조적 장치는 텍스트의 표층에 관여하는 문법적,

통화적 도구 및 패턴으로 발화체들이 구조적 연속성을 갖는데 기여한다.

- (2) a. 회기(occurrence): 대화상에서 한번 사용했던 표현이나 낱말 등을 다시 사용하는 것
- b. 대용형(pro-forms): 특정한 의미 내용이 없는 경제적이고 짧은 낱말
- c. 생략(ellipsis):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텍스트를 간결하게 만드는 것
- d. 상(aspect): 사상(event)의 상대적 시간, 경계, 단일성, 순서를 표시하는 장치
- e. 접속표현(junctive expressions): 부가적 관계, 택일적 관계, 대립 관계, 인과 관계, 그리고 종속관계를 명시
- f. 기능적 문장 투시법(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지식이나 정보우선도와 절과 문장의 어순 사이의 상관관계

결속구조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거나 듣는 표층 텍스트의 요소가 텍스트 전 후의 연결성과 상호적으로 연결된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지만, 결속성은 텍스트 내적 의미의 요소를 고려한다. 즉 개념과 표층텍스트 기저에 있는 관계가 텍스트를 발생시키는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 (3) A: That's the telephone.
- B: I'm in the bath.
- A: O.K.
- (Widdowson, 1978; 12)

위의 예제를 표층 텍스트상에서 본다면 두 대화자의 대화에 연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결성이 없다는 것은 대화가 연속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결속구조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I'm in the bath*가 단순히 대화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자가 욕실에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내적 의미를 담은 문장이라면 맥락을 구성하는 언어적 단서가 결여되어 문장 내의 함축 의미를 추론하는데 청자가 많은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결속구조는 결속성이 있는 텍스트를 생산하는데 충분하지 않지만, 기저에 의미적 관련성을 가진 텍스트에 대한 의미 요소를 결합하려는 인지적 작용, 즉 추론에 힘입은 바가 크다. 즉, 결속성은 텍스트내의 정보 요소 사이의 의미적 연결성을 가지는 논리 구조를 따른다(Beaugrande & Dressler, 1981: 3).

### 2.1.2. 의도성, 용인성 그리고 정보성

의도성은 지식의 분배, 제보, 또는 목적의 달성 등을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통해 실현시키는 도구이다. 텍스트는 반드시 텍스트성을 띠도록 의도되어야 하지만, 의도성이 있는 텍

스트에서 결속구조와 결속성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증명은 없다. 예를 들면, 각테일 주점의 광고문 구절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한다(Mey, 1993: 38).

(4) I bought some sushi home and cooked it; it wasn't bad.

초밥을 집으로 가져와 요리를 한다는 표현은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아 결속성이 위반되었지만, 각테일 주점에 손님을 찾아오도록 하려는 의도가 표층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광고'라는 텍스트에 대한 인식의 이해가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문장으로, 텍스트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텍스트 수용자는 발화되지 않았거나 사라진 정보가 있는 결속구조와 결속성이 결여된 텍스트를 추론에 의해서 복원할 수 있다. Grice(1975)는 텍스트 생산자는 수용자가 발화체에서 존재하는 함축의미를 알아낼 수 있도록 계획과 목표를 세워 발화를 하며, 그 의도된 함축의미로 인해 수용자에게 어떤 효과가 생겨날 수 있는 발화를 의도한다고 주장한다.

용인성은 텍스트 수용자의 태도에 관련이 있다. 텍스트 수용자는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특정 문화권의 농담은 다른 문화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의도성이 텍스트 생산자가 목적을 위해 계획적인 발화를 시도하는 책략이라면, 용인성은 텍스트 수용자가 생산자의 목적을 복원해내는 책략이다(Beaugrande & Dressler, 1981, p. 7-8).

대화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 정보는 이미 이전 문맥에서 제시된 예측 가능한 정보일 수 있고, 또는 아예 새로운 정보일 수 있다.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일 때, 그 텍스트에는 담화 참여자들이 인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정한 정보성이 있어야 한다. 정보성의 정도(degree)는 대화 참여자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Neubert와 Shreve(1992: 89)에 따르면, 정보성은 텍스트에 의해 무엇이 전달되는지에 대한 실제적 지식의 기능이라고 설명한다. 생산된 텍스트상의 정보는 수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예상이 되어야하고, 텍스트 수용자는 생산된 텍스트상의 정보를 받아들여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실제적 경험 또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Beaugrande & Dressler, 1981: 9).

### 2.1.3. 상황성, 상호텍스트성

상황성의 기준에서 텍스트 사용자는 맥락에 따라 정보나 상대방의 인지환경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그 담화 상황의 주변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상황은 의사소통의 방식, 형태, 공간적·시간적 제약, 대화자 사이의 관계 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텍스트의 생산 혹은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질이다. 대화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상황처리과정은 상황점검(situation monitoring)과 상황관리(situation management)를 통해 자신의 주변 상황을 수동적으로 관찰하고 능동적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김태욱 & 이현호, 1995).

마지막 기준인 상호텍스트성은 하나의 텍스트가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텍스트를 수용하거나 또는 응수하는 것으로, 텍스트 사용자들이 새로운 텍스트와 자신이 경험한 텍스트의 특성을 구분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Beaugrande와 Dressler(1981: 6)는 상호텍스트성에 대해, 주어진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은 대화자들이 경험에서 얻는 기존의 인지적 개념이 새로운 텍스트를 받아들일 때 중간조정 과정을 거치며 그들의 기대와 맞춰지는 모든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일차적으로는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주체와 주체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를 가리킨다.

#### 2.1.4. 대화격률과 텍스트성 이론 기준의 대응요소

위에서 논의한 텍스트성 이론 기준들의 특성은 Grice(1975)의 대화격률과 공유되는 특성이다. 양의 격률은 정보제공에 관련된 것으로 텍스트성 이론 기준 중 정보성에 관련이 있다. 과다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텍스트 수용자의 배경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므로 이는 상호텍스트성과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질의 격률은 대화에서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 계획적 발화를 시도하는 의도성과 수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예상되어야 하는 정보성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계의 격률은 상황을 조정해 나가는 상황성과 연관이 있으며, 주제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결속성이 대응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양태의 격률은 일관된 주제를 요구하는 결속성과 계획적 발화를 시도하는 의도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대화격률과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들의 대응에는 두 가지의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들이 참여가 된다. 용인성은 수용자가 발화체를 결속성과 결속구조가 있는 구성체로 받아들여려는 태도와 발화 생산자의 의사소통 의도를 탐지하려는 태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수용자의 지식과 수용 노력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속성이지만 발화자의 발화에 의미적 연관성을 보충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므로 특정 대화 격률과 연관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결속구조는 표층텍스트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통사적 구조나 어휘관계에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격률에 대응되는 요소는 없다. 아래의 표는 대화격률과 텍스트성 이론 기준들의 대응관계를 나타낸다.

표 1. 대화격률과 텍스트성 이론 기준의 대응관계

대화격률	대응되는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
양의 격률	정보성, 상호텍스트성
질의 격률	의도성, 정보성
관계의 격률	상황성, 결속성
양태의 격률	결속성, 의도성



텍스트성 이론을 이해하면 일상대화를 포함한 모든 장르의 언어적 통화행위를 분석할 수 있다. 텍스트성 이론의 일곱 가지 기준의 원리적 설명을 바탕으로 유머 텍스트에서 이와 같은 많은 텍스트적 행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장에서는 Grice(1975)의 네 가지 대화격률은 텍스트성 이론의 일곱 가지 기준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실제 유머 텍스트에서 어떤 기준이 위배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의 기준 위배가 다른 기준의 위배로 연결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 3. 텍스트성 이론 관점의 유머 텍스트 분석

Beaugrande와 Dressler(1981)는 이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으면 텍스트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유머 텍스트에서는 유머를 생성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텍스트 유형으로 이해된다. 유머 텍스트에서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들이 어떤 특성으로 판단되어 위배를 일으키는 것인가에 대한 정리는 아래와 같다.

- (5) a. 결속구조: 표층 텍스트간의 문법적, 어휘적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
- b. 결속성: 일관된 주제로 담화의 주제 또는 화제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
- c. 의도성: 목적을 위해 계획적인 발화를 시도하는 것
- d. 용인성: 텍스트 생산자의 목적을 복원해 내는 것
- e. 정보성: 정보는 수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예상되어야 하는 것
- f. 상황성: 불일치나 불연속성을 점검하고 자신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상황을 조정해 나가는 것
- g. 상호텍스트성: 텍스트 수용자의 배경지식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

Beaugrande와 Dressler(1981)는 텍스트가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텍스트안의 지식들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연속성이 없으면 텍스트에 표현된 개념과 구성방식이 텍스트 수용자의 배경지식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대화 참여자들 간의 배경지식의 불일치는 상호텍스트성과 정보성에 연관이 있으며, 연속성이 결여된 텍스트는 결속성이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속성을 어기는 것이 상호텍스트성과 정보성을 어기는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의도성과 용인성은 각각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의 태도를 정의하기 때문에 하나의 위배가 다른 하나를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머 텍스트에서 급소 문구를 발생시키기 위해 연속적 위배가 있는 것을 가정하고 분석을 하고자 한다. 예제로 사용되는 유머 텍스트는 청중들의 웃음소리가 방송에 흘러나와 급소문구의 위치를 알려준다. 그러므로 웃음소리를 기준으로 급소문구를 판단하고

어떤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이 위배가 되는 지 알아보고, Grice(1975)의 대화격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지 밝혀보겠다.

아래의 대화는 여주인공 Penny가 자신의 집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으려다 끼여 버린 상황에서 발생한 유머 텍스트이다.

- (6) a. Penny: I can't get the damned key out.  
 b. Sheldon: Well, that's not surprising. That Baldwin lock on your door uses traditional edge mounted cylinders, whereas the key for your Volkswagon uses a center cylinder system.  
 c. Penny: Thank you, Sheldon.  
 d. Sheldon: You're welcome. Point of inquiry, why did you put your car key in the door lock?  
 e. Penny: Why? I'll tell you why. Because today I had an audition, it took me two hours to get there, I waited an hour for my turn, and before I could even start they told me I looked too Midwest for the part. Too Midwest? What the hell does that even mean?  
 f. Sheldon: Well, the American Midwest was mostly settled by Scandinavian and Germanic peoples who, well they have a characteristic facial bone structure...

<Episode 3 in Season 2>

예문 (6)에서는 열쇠가 빠지지 않는 다는 페니의 혼잣말을 시작으로 또 다른 대화 참여자인 셸튼과 총 여섯 번의 발화를 주고받는다. (6b)에서 셸튼은 열쇠구멍의 종류와 열쇠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 예측성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이어서 (6c)와 (6d)에서는 의도적 비꼬기(sarcasm)과 그것을 비꼬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용인성 장애 캐릭터를 가진 셸튼의 반응에 또 한번 웃음 유발이 되고, (6e)와 (6f)에서 또 한번 페니와 셸튼이 각각 비 예측성 발화를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6a)에서부터 (6f)까지의 발화들은 주제가 조금씩 빗나가면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속성이 결여되어있다. 이를 일상적 대화의 단계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실수로 차 열쇠를 집 열쇠구멍에 넣은 페니를 셸튼이 도와주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다. 하지만 시트콤에서는 캐릭터의 설정이 대화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용인성 장애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남자 주인공의 역할과 금발의 백치미를 가진 여자 주인공의 역할이 웃음유발을 위해 화용이론에서 제시한 다양한 대화의 기준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으로 보인다.

예문 (6)는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들에서 상황성을 제외한 여섯 가지를 위배한 것으로 보

인다. 물론 예문 (6)에서 상황성의 기준을 맞춘 것은 있다. (6c)는 과도한 정보를 주는 쉘든에게 페니가 “Thank you, Sheldon”이라 하며 비꼬기로 상대방이 주는 상황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이 시트콤에서 쉘든은 용인성 장애 캐릭터로서 대화자가 대화에서 내포하는 의미를 표면구조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6d)와 같이 “You’re welcome”이라 답한다. 페니의 의도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없으므로 용인성이 결여된 것 또한 동시에 발생한다.

Grice(1975)의 대화격률 관점을 기준으로 예문 (6)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격률의 위배를 본다면 (6b)에서 쉘든은 발화를 이해할 정도의 필요한 양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양의 격률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텍스트성 이론의 관점에서는 (6a)의 발화와 의미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정보제공일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배경지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결속성과 상호텍스트성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백과사전적 지식의 나열이기 때문에 정보성 또한 위배하였다. 하지만 열쇠에 대해 첫 발화를 하였고, 그 직후에 열쇠에 관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결속구조는 있다고 본다. 그 반면에 (6d)에서 (6e)로 연결되는 대화에서는 “why did you put your car key in the door lock?”이란 질문에 “Why? I’ll tell you why. Because today I had an audition.”이라 답을 한 것은 결속구조에 위배되었다. 표층텍스트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연결성이 없다. (6e)의 발화에서는 두 가지 격률이 위배가 되었다. 페니가 왜 차 열쇠를 집 열쇠구멍에 넣었냐는 질문에 장황하고 모호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양태의 격률을 위배하였고, 또 하나는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양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이는 일관된 주제로 담화의 주제에 부합하도록 하는 결속성의 위배와, 발화 목적을 위한 계획 없이 발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의도성이 결여되었다고 본다. (6f)는 또 다시 쉘든이 백과사전적 지식으로서 ‘Midwest look’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지만, 이를 텍스트성 이론 관점에서 본다면 (6e)에서 페니의 마지막 발화인 “Midwest? What the hell does that mean?”을 쉘든이 표층언어로써 받아들이면서 (6f)에서는 결속구조는 있으나 정보성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텍스트 생산자인 페니의 목적을 복원해 내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용인성이 위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4.에서 대화격률과 텍스트성 이론 기준들이 대응되는 것을 각각의 정의에 의해 분류하였다. 용인성은 수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요소로서 대응요소에서 제외되었지만, 위의 예문에서 나타나듯이 양의 격률을 위배하는 것이 용인성 또한 위배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양의 격률을 위배하는 것은 수용자의 입장에서 용인성을 위배하는 구조인지를 아래의 예문을 통해 확인하겠다.

- (7) a. Raj: Hold on. Sheldon, is there ketchup on that table?  
 b. Sheldon: Yes, there is. Oh, here’s a fun fact. Ketchup started out as a general term for sauce, typically made of mushrooms or fish

brine with herbs and spices. Some popular early main ingredients included blueberry, anchovy, oyster, kidney bean and grape.

c. Raj: No, that's okay. I'll get it.

<Episode 17 in Season 3>

예문 (7)은 음식점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앉아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상황이다. 대화 참여자인 라지가 쉘든에게 케첩이 있는지("is there ketchup on that table?") 물어보는 것은 케첩을 넘겨달라는 간접화행으로서의 요청이었다. 하지만 표층 언어로만 받아들인 쉘든은 케첩이 테이블에 있다고만 대답하고, 케첩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는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격률에서 양의 격률을 위배한 것과 동시에 그 상황에 굳이 요구되지 않은 정보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관계의 격률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양의 격률이라 하면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에서는 정보성과 상호텍스트성을 어기는 것이지만, 요청자인 라지의 의도를 수용자인 쉘든은 목적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용인성이 위배된다고 분석된다. 그렇다면 양의 격률을 위배하는 것은 용인성의 위배로 이어지는 것을 두 예문을 통해 알 수 있었고, 상황성과 상호텍스트성의 위배가 용인성의 위배로 이어진다는 패턴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질의 격률의 위배가 텍스트성 이론 기준의 의도성과 정보성의 위배로 대응이 되는지 예제를 통해 분석하겠다.

(8) a. Sheldon: I've never slept on an air mattress before. No lumber support whatsoever.

b. Howard: Maybe you'd be happier on a park bench.

c. Sheldon: I don't see any way to get a park bench in here.

<Episode 1 in Season 2>

예문 (8)은 쉘든이 하워드의 집에 하룻밤 신세를 졌으나, 쉘든은 잠자리에 대해 불평을 한다. 하워드는 물론 공원 벤치가 에어매트리스보다 더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쉘든이 공원 벤치에서 잔다고 더 행복해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하워드는 공원벤치에서 잠잔다면 더 행복할 것 이라는 거짓된 발언을 한다. 하워드는 쉘든이 그만 불평하고 자신의 호의에 감사해할 것을 의도하지만 그 의도는 쉘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위의 예문에서 정보성이 위배되는 것은 쉘든의 캐릭터가 대화에서 함축적 의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쉘든이라는 캐릭터에 의해서 정보성이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관계의 격률이 상황성과 결속성을 위배하는 것을 비교해보겠다.

- (9) a. Penny: So, hey. How are things with you and Leslie?  
 b. Leonard: Oh. To be honest, I don't think it's going to work out.  
 c. Penny: Oh, that's too bad. Well, hey, don't worry. I'm sure there's someone out there who's just right for you.  
 d. Leonard: well, what did she mean by that? Was that just a generic platitude or was that a subtle bid for attention?  
 e. Sheldon: you know why this hamburger surpasses the Big Boy? This is a single-decker, whereas the Big Boy is a double-decker. This has a much more satisfying meat-to-bun-to-condiment ratio.  
 f. Leonard: Are you even listening to me?  
 g. Sheldon: Of course I'm listening. Blah blah, hopeless Penny delusion, blah blah blah.  
 h. Leonard: Okay then. You know, you can grow the ingredients for soup.

<Episode 5 in Season 1>

위의 예문에서는 페니와 레너드가 레너드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쉘든은 햄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주제에서 벗어난다. 이는 주제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결속성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에 벗어난 대화를 하는 쉘든에게 레너드는 상황을 다시 주제로 연결해보려는 시도를 하지만 결국 포기하고 쉘든을 주제로 벗어날 수 있도록 종용한다. 이는 레너드가 자신의 대화 목표에 부합되도록 주제를 조정해보려 했지만 결국 포기하였기 때문에 상황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는 양태의 격률 위배가 결속성과 의도성의 위배와 대응되는 예제이다.

- (10) a. Sheldon: Now, where were we? Oh, yes. Does anyone have any wood? Oh, come on! I just want wood. Why are you making it so hard?  
 b. Sheldon: And now that I have some wood, I'm going to begin the erection of my settlement.

<Episode 13 in Season 5>

쉘든의 발화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서 쉘든은 모호함과 중의적 표현을 함으로 청중들의 웃음과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대화참여자들의 웃음을 유발한다. 위의 예문에서 *wood*와 *erection*은 둘 다 건설에 쓰이는 단어이다. 하지만 (10a)에서 발화자인 쉘든을

제외한 나머지 대화참여자들은 *wood*는 남성의 성기로 받아들이며 “why are you making it so hard”가 급소문구로 적용이 되며 형용사 *hard*를 ‘어려운’이 아니라 ‘딱딱한’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분명 셀튼은 보드게임에서 자신이 필요한 아이템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의도성의 위배가 이루어진다. 이는 또한 필요한 게임 아이템에 대해 일관된 주제로 말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이 주제를 바꾸어 생각하기 때문에 결속성에도 위배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ice(1975)의 대화격률과 Beaugrande와 Dressler(1981)의 텍스트성 이론 기준들의 대응이 위배의 대응으로 이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유머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밝혀내고자 하였다.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들과 대화격률은 각각의 정의에 대한 대응은 이루어지나 위배의 대응으로는 완벽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완벽한 대응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자면, Grice(1975)의 대화격률은 텍스트 생산자중심의 이론이고, Beaugrande와 Dressler(1981)의 텍스트성 이론 기준들은 텍스트중심, 텍스트 생산자중심, 그리고 텍스트 수용자중심으로 각각 특성이 나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머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대화격률과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들의 정의에 대한 대응에서 결여되었던 용인성이 상황성과 상호텍스트성의 위배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초반에 예측하지 못한 이러한 대응은 대화격률이 온전히 텍스트 생산자중심의 이론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화자 중심의 협력원칙이 화자와 청자, 그리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텍스트성 이론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음을 보인다.

#### 4. 결론

본 연구는 Beaugrande와 Dressler(1981)의 텍스트성 이론 기준들과 Grice(1975)의 협력원리 중 대화격률을 유머 텍스트의 급소문구에 적용하여 두 이론이 공유하는 특성과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들의 위반이 대화격률의 위반과도 특성을 공유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유머 텍스트는 웃음 유발을 목적으로 만든 이야기 구조로 일반적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이해의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유머 텍스트가 보여주는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들의 위반이 대화격률의 위반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텍스트성 이론이 언어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유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영역과 다양한 성격에서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들의 위반 또한 유머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유머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유머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청중은 급소 문구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보았기 때문에 등장인물 차원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진 것에서 어떠한 일반화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텍스트의 유형을 파악하는 개념으로 기준들의 위반도 대화격률의 위반과 마찬가지로 유머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유머는 언어의 변이 요소로, 다른 텍스트와 동일하게 구성되어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 때문에 하나의 연구 잣대로만 유머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쉽사리 재단하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텍스트성 이론의 기준을 Grice(1975)의 대화격률과의 비교에만 국한하여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야가 한정적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유머 텍스트에 대한 연구 진행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구현정. (2000). 유머담화의 구조와 생성 기제. *한글*, 248, 159-184.  
국립국어원, “유머”.  
[http://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View.do?forgn\\_seq=15790&mn\\_id=96](http://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View.do?forgn_seq=15790&mn_id=96) (2016.06.18.)
- 김태욱 & 이현호. (1995). 담화 연구의 텍스트성 이론과 적합성 이론. *담화와 인지*, 1, 1-78.
- 남경완. (2002). 유머 텍스트의 내적 구조와 추론 양상. *텍스트언어학*, 13, 295-314.
- 박나리. (2008). 학술논문의 텍스트성 분석: 의도성(intentionality)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5, 163-192
- 오정은 & 박기성. (2010). 영어 시트콤 담화텍스트상의 유머 생성기제: 체면위협행위와 대화격률 위배를 중심으로. *코기토*, 68, 405-427.
- 임지원. (2007). 유머 담화의 생성 기제와 제약 조건: TV 광고문에 나타난 유머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8, 129-157.
- 최영건 & 신현정. (2015). 유머텍스트 처리에서 스키마의 활성화 과정. *한국콘텐츠학회*, 15(9), 425-435.
- 한성일. (2002). 유머 텍스트의 사회 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10(1), 339-362.
- 한성일. (2004). 유머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 *텍스트언어학*, 17, 309-332.
- Attardo, S. (1994). *Linguistic Theories of Humor*.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 Beaugrande, R. D., & Dressler, W. U.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 Grice,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 and J. Morgan(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pp.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Halliday, M. A. K., &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Horn, L. (1984). Toward a new taxonomy for pragmatic inference: Q-based and R-based implicative. In: Schiffrin, D. (ed.), *Meaning, Form and Use in Contest*

- (p. 11-42).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Koestler, A. (1993). Humor and Wit. In McHenry, R. (ed.), *Encyclopaedia Britannica* 20 (p. 684-685).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 Mey, J. (1993). *Pragmatics: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 Neubert, A., & Shreve, G. (1992). *Translation as Text*. Ohio: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Ross, A. (1998). *The language of Humour*. London: Routledge.
- Schegloff, E., & H. Sacks. (1973). Opening up Closings. *Semiotica*, 8, 289-327.
- Sperber, D., & Wilson, D. (1986). *Relevance*. Oxford: Blackwell.
- Widdowson, H. (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he Bigbang Theory." CBS.com.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http://www.cbs.com/shows/big\\_bang\\_theory/](http://www.cbs.com/shows/big_bang_theory/)

#### 이연우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화: 051-510-2043  
이메일: yeunwoo.lee@hotmail.com

#### 박기성(교신저자)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화: 051-510-2043  
이메일: ksepark@pusan.ac.kr

Received on April 15, 2016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ly 26, 2016

Accepted on September 30, 2016